

#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가 안동권씨 가문, 권근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가 안동권씨 가문, 권근’은 박상하 작가가 저술한 조선왕조 5백년을 이끈 5대 명문가의 이야기 <나는 삼한갑축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안동권씨 종보에 게재해도 좋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신는다. 박상하 작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는 가장 진실한 통찰을 준다는 일념 위에,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베네딕토 크로체의 철학을 더해, 현대적인 문학 가치를 사회성 짙은 역사를 재발견하는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발표 작품으로는 <나는 퇴계다>, <나는 율곡이다>, <한국인의 원형을 찾아서>, <율곡 평전>, <상업의 역사>, <명성황후를 찾아서> 등 다수가 있다.

편집자주

### 예문관·보문각·집현전의 3관 대제학

명나라에서 돌아온 권근은 이후 승승장구했다. 정종 원년(1399) 권근은 정당당경 겸 사헌부 대사헌(종2품)에 제수되었다. 이때 그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멈추기 위해 개인이 병력을 거느리는 사병제 私兵制의 폐지를 주청했다. 이듬해 이방원은 왕세제 王世弟가 되었다. 여전히 그칠 줄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지켜보면서 권근은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종은 이후에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종이 즉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요동쳤다. 권력의 실세인 이방원이 태종(3대)으로 즉위케 된다. 권근은 추충의대좌공신 推忠翊戴佐命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성균관대사성·보문각(홍문관) 제학(종2품) 등 정치권력보다는 학문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었다.

태종 2년(1402) 과거를 관장하면서 신효 등 대과 급제자 33명을 선발했다. “편년삼국사 編年三國史”를 수전修撰(책을 엮어 펴냄)하라는 어명을 받고 하윤, 이첨 등과 함께 집필에도 착수했다.

같은 해 가을, 마침내 예문관 대제학(종2품)에 올랐다. 한 집안에서 대가 끊기지 않은 ‘3대대 대제학’, 곧 최고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그 첫 문을 활짝 열여줬었다. 길은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아랫물, 숲속의 밤이 되기 위한 장도에 오른 것이다.

이듬해 주자소 鑄字所가 설치되었다. 성균관 대사성에 이어 또다시 보문각(홍문관) 대제학에 올랐다. 여름에는 하윤, 이첨 등과 함께 수찬에 들어간 ‘신수 동국사략 東國史略’의 편수를 마쳤다.

다시 이듬해 관직을 떠나 한거하며 “예경절차”의 편집을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청했다. 태종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신 태종은 3관(예문관, 보문각, 집현전)의 문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예경절차”를 완성하여 올리라고 하며, 서국書局에 명하여 역할을 분담시켰다. 그 뒤 권근은 증주부 권부權溥가 편찬한 ‘효행록주’를 집필했다. 이후에도 재차 사직을 상주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예문관 대제학, 보문각 대제학에 이어 집현전(홍문관) 대제학까지 3관의 대제학에 모두 오르는 영



예를 누렸다. 태종 7년(1407) 하윤과 함께 당하관(종3품 이하)의 문무관 가운데 10년마다 선발하여 승차시키는 중시重試를 관장해서 예문관 직제학(종3품) 변계량 등 10명을 선발했다. 의정부 찬성사(종1품)·춘추관사(종1품)·왕세자 이사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에게 허물이 드러나면서 조정이 떠들썩했다. 태종이 격노하여 그들에게 죄를 몰으려 하자 권근이 만류하고 나섰다.

“순나라 임금에 남에게 문기를 좋아하여 중의를 모아서 국정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이 무렵 우연히 병을 얻어 거동이 어렵게 되었다. 환후가 침중해지자 태종이 약을 하사하며 매일같이 안부를 물었다.

태종 9년(1409)은 생애의 마지막 해였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2월 중순, 백약이 무효하여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향년 58세였다.

저서로는 “입학도설” “오경전권록” “경서구결”, “동국사략” “동원사략” “양촌집”이 있다. 정도전의 “불씨잡변”에 주석을 더했고, 어명을 받아 구결을 지정하였을뿐더러 권학사목 學事目 8조를 올려 문교시책의 시정과 보완에 이바지했다. “예기전권록”을 찬하고, 하윤과 함께 “동국사략”을 지어 올렸다.

### 순수하고 깨끗하며 온화하고 아담했다

권근의 절기가 “조선왕조실록”에 전해진다. 그의 절기가 꽤 길기 때문에 일부만을 옮겨보면 이렇다.

“길창군吉昌君 권근이 죽었다. 이른 새벽에 태종이 권근이 위락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왕세자에게 문병하도록 명했다. 왕세자가 막 떠나려 하는데 권근이 그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중지했다. 권근의 호는 양촌陽村이고, 안동사람이다. 고려왕조의 정승 권부의 중손이며, 검교정승檢校政丞 권희의 아들이다.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그친 적이 없었다. 열여덟 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춘추 집열(정품)에 제수되어 왕부의 비자치 者赤(기록하는 일을 맡은 관원)가 되었다.

계축년에 중국의 향시 3등에 급제되었으나, 나이가 25세 미만인 까닭에 북경에 가서 응시하지 못했다. 갑인년에 성균관 직강과 예문관 응교에 제수되었다. 공민왕이 갑자기 죽자,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제 맘대로 죄인들을 풀어주고 고려왕으로 하여금 예를 갖춰 접대하기를 강요했다. 권근이 정

몽주, 정도전 등과 함께 의정부에 상소를 올려 원나라 사신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그 말이 간절하고 곧아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중략>...

임오년 봄에 참찬 의정부사로 과거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되어 신효 등 33인을 급제시켰다.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정중하게 권근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서모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예를 더했다.

어사 유사길과 내사 온불화가 중국 사신으로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에도 역시 변경인 압록강에서부터 권근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이 도성에 이르자, 임금이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 재상이 차례로 술잔을 돌리는 예를 행했다. 권근이 예를 행하자, 유사길과 온불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금이 ‘큰 나라의 사신께서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요?’라고 하자 유사길이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 감히 유학자로서 학문과 덕이 높고 행실이 바르며 품격을 갖춘 노성군자老成君子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온불화도 ‘황제께서 공격하는 분입니다’라고 덧붙었다. 온불화는 바로 발라이다.

...<중략>...

정해년 여름에 임금이 친히 문사文士를 시험하였는데, 권근과 좌의정 하윤을 독권관으로 명하여 예문관 직제학 변계량 등 10명을 뽑았다. 무자년 겨울에 위독하였는데, 임금이 노하여 대간의 관직에 있는 자를 장차 극형에 처한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려 간절히 간했다. 임금이 이에 석박했다. 병들어 누운 날부터 임금이 약을 하사하고 문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죽을 때의 나이가 58세였다. 임금이 비보를 듣고 놀라고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담당 부서에 명하여 상사喪事를 돌보게 했으며, 제사를 내린 데 이어 조문하고, 부의를 매우 후하게 했다. 왕비도 내관을 보내어 치전致奠(사람이 죽었을 때, 친척이나 벗이 슬퍼하는 뜻을 나타냄)하고, 왕세자가 친히 상가를 찾아가 제사지냈다. 성균관 대사성 최함 등이 홍문관·예문관·교서관의 문서들을 거느리고 제사를 지냈다. 시호를 문충文忠이라 했다. 권근이 일찍이 예문관 검열(정9품)에서부터 정승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대제학으로 재임하면서 홍문관과 예문관의 직임을 역임했으며, 단 한 번도 외직外職에 제수되지 않았다.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깨끗하며 온화하고 아담했으며, 특히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평소 예 비록 아무리 다급한 때일지라도 말을 빨리 하거나 당황해하는 빛이 없이 침착했으며, 배척을 당하고 관직을 내놓게 되어 죽고 사는 것이 목전에 있었을 때에도 태연하게 처신하면서 일절 상심하지 않았다. 무릇 세상을 다스리는 문장과 중국에 보내는 글도 또한 모두 그가 지었다. 문집이 여럿 있어 세상에 전해진다.

그가 장차 임종하려 할 때 아들과 사위를 불러 모아 유언으로 불교 의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들과 사위들이 상을 치르는 것을 일체 가례家禮에 따랐다. 아들 넷이 있으니 권철, 권도, 권규, 권준이다.

(다음호에 계속)

## 갈산공, 시조 태사공 꿈을 꾸다



운곡서원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제작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영정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종보 광고를 통해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시조 태사공에 관한 글이나 그림 또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다면 대중회로 연락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마침 장원에 게시는 권태현 족친께서 좌윤공과 갈산공(葛山公, 31世 휘諱 종락宗洛, 1745~1819)께서 잠을 자다 시조 태사공의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담긴 운곡서원 창건일기를 보내왔다. 창건일기에는 시조 태사공의 신장과 허리둘레, 안색, 풍채와 기품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권태현 족친이 제공한 번역문을 소개한다. 갈산공은 단종복위가 실패해 끝내사 예전으로 낙향하여 절명을 택한 단종의 이모부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의 12대 손이다.

갈산공은 단종 사화로 죽은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었는데도 자신의 12대조만이 빠졌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여기고 한양으로 올라가 정조(正祖)의 어가(御駕) 행렬을 가로막고 격쟁(擊箏)하여 죽림공의 신원이 이루어지게 한 인물이다. 이후 죽림공은 금성단(錦城壇)에 배향되었다.

갈산공은 죽림공의 교지(教旨)를 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주 금성단(사적 491호)에 들러 고우(告由)하고 금성단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암각수鴨脚樹) 가지를 잘라 운곡서원 유연정(悠然亭) 옆에 심었다. 운곡서원 압각수는 그런 역사적인 사연을 안고 있다.

### 운곡 추원사 창건일기

아!孔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공(周公)을 다시는 꿈꾸지 못한다.” 하였다. 주공은 공자와 사이가 500여 년인데 공자가 늙기 전에 주고 성인(聖人)을 꿈에 보았다니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생각이 있으면 꿈에도 있는 것 인지도. 작년 3월 꿈에 태사공(太師公)이 “고향에 돌아와 말을 매어 두었느니라.”라는 시구(詩句)를 얻고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겼는데 운곡사(雲谷祠) 창건역사(創建役事)를 마친 다음에는 일단 성심(誠心)을 다해 봉안(奉安)하는 데



갈산공 기적비. 운곡서원 압각수 앞에 자리하고 있다.



경덕사에는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죽림공 권산해와 귀봉공 권덕린을 배향하고 있다.

만 집중하였다. 이 9월 24일에 영보당(永報堂) 북쪽 방에서 자면서 꿈을 꿴다. 태사공께서 의젓하게 모자를 쓰시고 앉아 계시는데 모자의 제법(製法)이 실로 지금 세상에서 본 바가 아니고 얼굴은 붉고 긴 다투고 허리는 한 아름이 채 안 되며 현걸차고 빼어나 도시(都市) 호걸(豪傑)의 기상(氣相)이고 눈은 새벽별의 정채(精彩)가 사람을 쏘는 것 같고 키는 불과 7척(尺)이었다. 죽림공(竹林公)은 시조(始祖)의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 흰 신을 신으시고 푸른 눈빛이 밝게 빛나니 천정(天井)이 넓게 내려앉은 듯 압도(壓倒)한다. 의기(義氣)로운 태도가 단정하고 침중(沉重)하며 몸과 허리는 원만(圓滿)하고 키는 내 키와 비슷하였다. 귀봉공(龜峯公)은 얼굴이 맑고 윤택(潤澤)하면서 둥글고 희며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순색(純色)의 검은 신을 신고 시조의 오른쪽에 앉았다. (시조께서) 책(冊)을 잡았는데 책감(冊匣)이 없고 종이는 담백(淡泊)한데 제목이 동국잡요(東國纂要)라 했다. 입에 연지(燕脂)를 바르고 손으로 책장(冊張)을 넘길 즈음 내가 머리를 들고 보니 꼭 명신록(名臣錄) 같은데 성명(姓名)은 각각 썼으나 공적(功績)은 모르겠고 아무 아무이더라. 내가 옆으로 아뢰는 것은 다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호국(護國)할 때의 일이었다. 시조께서 말마다 머리를 끄덕이시고 때때로 돌아보는데 안색(顔色)에 기쁜 빛이 계시더라. 어느덧 홀연(忽然)히 꿈에서 깨니 세 어른의 참모습이 삼삼하게 눈에 선하다. 꿈꾼 일을 말하고 싶으나 허황(虛荒)한 일이라 그냥 남기고 공자가 주공을 꿈꾼 일에서 스스로 감탄한 바가 있을 뿐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 친애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중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 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댁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격 : 가로 107cm, 세로 180cm

###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 안동권씨 대중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